

2023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7.25.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5	-	1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전월(6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해맑음센터 폐쇄 관련 보도> 대전에 학교폭력 치유센터인 해맑음 센터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폐쇄되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 지속적인 취재를 해 주셨으면 함	지속적인 취재를 요청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예정임. <23. 7월 조치>	'22.6월
보도	<반지하 침수 예방 보도> 서울 반지하 대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전도 비슷한 상황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의 반지하 침수에 대해 지자체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7월에 이와 관련한 관심 있는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이미 장마가 시작됐는데 반지하 이슈나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설치된 건 아직 몇 개 없어서 그 부분을 오늘 보도 예정이고 7월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할 예정 <23. 7월 조치>	'22.6월
보도	<천안 학폭 신고건 심의 예정 보도> 피신고 학생의 반론만을 다루고 보도가 끝났는데 이전에 처음 보도할 때 피신고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한 건 아닌지 아쉬움이 있어	성추행이 결부된 학생들간의 사건이라 간접적으로 학교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언론종재 간다며 반론을 다루달라고 해서 다루고 동일 조건으로 기사를 삭제한 건임. <23. 7월 조치>	'22.6월
보도	<세종 정부청사 만취운전 보도> 법률 뉴스는 여러 번 보도가 되면 앞 보도를 봤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는데 일반 시청자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앞 보도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었으면	1심, 2심, 3심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요약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사실임. 계속 덧붙이다 보면 뉴스 분량이 길어져서 요약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23. 7월 조치>	'22.6월
보도	<소청심사위 60주년 기념식 보도> 뉴스 첫 화면에 세종시장이 한참 나오고 소청심사위원장은 거의 뒷부분에만 나오는데 화면 구성이 아쉬웠음.	소청 심사위 행사 편집 부분은 편집 쪽에 문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방송 계획> <시시각각> 방송이 끝나고 이후에 시사프로그램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MBC라는 이미지가 있으니 그 비전이나 계획을 들여보고 싶음.	<시시각각>은 내부 사정으로 종료가 되었고 <시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8~9년 정도 쉬었는데 2달 뒤에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준비되면 소개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교양	<다큐 제작 계획> 다큐 <장날>이 5월에 끝나고 6월에는 <시시각각>과 <장날>이 다 끝났음. VOD에 보면 2월 이후에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지 않았는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음	상반기에 마땅한 다큐 없었음. 8월,9월에 <내셔널로드 NO37>과 <세계의 조국> 두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교양	<오늘M-블랙 화면 노출> 세종수목원 아라홍련을 다른 꼭지 방송중 중간중간에 가만 화면이 노출됨. 생방송이 아니라 리포트였기 때문에 편집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편집을 꼼꼼하게 해주길 바람.	세종수목원 아라홍련은 제작물이 아니고 라이브로 진행한 것인데 LTE를 통해서 진행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중간에 발생한 것 같음.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쟁거 보도록 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교양	<다큐 장날> 시즌2가 생긴다면 장날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추가로 다뤄 주었으면 함. 또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어른들이 생각하고 회상하는 어릴때의 장터모습도 그려주길 바람	청년들의 모습들과 시각을 다르게 보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향후 시즌2가 들어가게 되면 유념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교양	<오늘의 면접> 직원분들 인터뷰하는 장면이 너무 경직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들로 흘러감. 청년들한테 기업을 제대로 알려려면 소통하듯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함. 자체제작인지 외주제작인지?	오늘의 면접은 지역방송 제작자원을 받아서 대전MBC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임.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장PD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교양	<연중캠페인> 연중캠페인 내용이 좋는데 분방을 보지 못하면 홈페이지 다시보거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음	연중캠페인은 유튜브에는 소재가 바뀔 때 마다 올라오는데 홈페이지 다시보기는 자체 논의를 통해서 섹션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기타	<AM방송 중지 안내> 공지사항에 AM라디오 방송이 중지되었다는 안내문에 앞으로는 FM방송으로만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AM방송을 청취했던 청취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 건지 중지되었다는 안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함.	AM 방송내용이 없어진건 아니고 똑같은 방송내용이 FM으로 방송되고 있음. AM방송은 노이즈가 심해서 청취자가 별로 없고 이번에도 6개월간의 휴지기동안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거의 민원이 없었음. 그래서 방통위에서 AM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임. <23. 7월 조치>	'22.6월
기타	<시청자의견 피드백> 시청자 의견에 올라온 공익 제보를 취재해서 잘 처리한 것 같은데 공익 제보해 주신 분한테 별도의 피드백을 해주셔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면 함	공익 제보 관련해서 방송을 했으면 아래에 답글 한번 다뤄줬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저희도 고려를 했는데 기록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음. 그렇게 진행하겠음 <23. 7월 조치>	'22.6월
기타	<시청자의견 답글 관련> 아나운서 실수를 지적하는 시청자 게시판 의견 답글을 해당본인이 직접 달았는데 직접 하지 말고 게시판 담당자가 해당자에게 물어본 후 제3자 입장에서 답글을 적어주면 어떨지?	시청자게시판 의견이 올라오면 우선 해당자에게 답글을 달아라고 하지는 않고 담당자가 의견을 받아서 올리고 있음. 하지만 이번건은 본인이 직접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 고민해 보겠음 <23. 7월 조치>	'22.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7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 ~ 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 ~ 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 ~ 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 ~ 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 ~ 23.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 ~ 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 ~ 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 ~ 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 ~ 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 ~ 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2023년 7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대전시 용역 수의계약 관련 보도> 대전시 용역계약 10건중 9건이 수의계약이라는 보도는 언론의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 축제 용역 관련해서 비슷한 이슈도 있고 제보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심도있게 취재하면 좋을 듯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수해 피해보상 관련 보도> 충남도의 수해피해자 지원 대책이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2020년 용담댐 수해피해 분쟁 조정도 안 됐는데 피해 복구 관련해서 집중할 부분이 뭔지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사전 주의 예고 보도> 재난 보도시 평소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예고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백선업 장군 친일기록 관련 보도> 보훈부 신임 장관이 백선업 장군의 친일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는데 광복회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선명하게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미술 관련 공익캠페인> 지역에서 이사나 개업시 그림을 선물하자는 캠페인을 방송함으로써 지역 미술시장을 키우고 다양한 예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전시회 소개 프로그램> 전시회 소식을 전할 때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고 왜 이런 전시회가 열렸는지 깊게 다뤄주면서 일반인들이 예술 감각을 넓힐 수 있게 다채로운 프로그램 만들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재난 관련 안내 방송> 장마시 반 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대피요령만 나오는데 이번 지하차도 인명피해가 많았으니 관련 지하차도 대피 요령도 안내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다채롭고 가볍고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생태, 기후, 인권 등 여러 문제들도 선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어휘 선택의 적절성과 서술의 마무리> <오늘M> 공주 옥룡동 수재현장 인터뷰에서 '막막하다'는 맥락에서 '적척' 해낸다는 표현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얼굴은 밝아 보여'라는 표현은 어긋난 표현으로 보임.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의견 답글 관련> 천안지역 흑성산 UHD방송은 언제 들어가는지?	회의록 첨부	○		

□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인프라국장은 오늘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중에 총 6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흑성산 UHD 방송은 언제 시작하는지와 유등천 물색이 이상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 의견들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부터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기후변화의 폭력성, 난폭한 기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방송사도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포함하면 인명 손실도 있고 현장에서 뛰는 기자 PD들이 인원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들 별 피해 없으시죠?

방송사의 가장 큰 이슈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앞으로 방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송사의 문제도 될 것 같고요. MBC 본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MBC를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는 없는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어 그걸 통로로 MBC의 경영 상황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MBC 본사는 감사원이 법에 없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

는데 어떻게 될지 방송 환경을 둘러싼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시청자 위원님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셨는데 대전MBC 콘텐츠뿐만 아니라 행사라든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문제로 거의 재난 상황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취재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대전 충남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특히 이런 때일수록 기자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지역민으로서의 방송사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MBC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한 달간 MBC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오신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정미 교수님부터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정미 위원

7월에는 보도국의 활동이 아주 눈에 띄었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보도하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고 단순한 취재뿐 아니라 다각도로 기사를 다루고 있어서 좋은 취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재난 피해 보도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관련법들에 관한 이슈들도 굉장히 잘 다뤄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제 대전시의 용역 계약에 관련된 기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건 중 9건을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지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국의 활약이 이번에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오늘M> '이추남' 코너에서 5일은 노인학대, 11일은 웰다잉, 19일은 대한민국 빈집이었습니다. 인구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충청 지역의 빈집들이 어떻게 놓여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 공무원도 만나고 꽤 자세한 취재를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웰다잉 문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전연명의향서라든가 웰다잉을 위한 건강관리, 노후 활동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각이 조금 참신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저도 보도를 집중적으로 보긴 했는데요. 재난 보도를 열심히 해주신 내용들을 잘 봤고 특히 보도뿐만 아니라 <오늘M> 프로그램에서 7월 22일자 공주 청양 지역의 수해 피해 현장들에 대한 수해 피해자들의 정확한 이야기들이나 자세한 사정들을 깊게 다뤘었거든요. 보도에서 짧게 짧게 나갔던 아쉬움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에서 맞춰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난 보도 이후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관련 보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 취재가 어려운 편이긴 한데 다행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뉴스를 잘 봤는데요. 근데 그 피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그걸 전액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건가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나서 국비 지원하는 데 모자란 부분들을 지자체가 다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태풍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책들이 과연 맞는 대책인 것인가라는 분석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신청하실 때 보상 금액에 대한 이견 차이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특히 2020년도에 용담댐 수해피해 관련해서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 조정이 해결이 안 돼서 제대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피해 복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집중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전시 수의계약 건 관련된 건데요. 이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KBS가 방송으로 먼저 보도하면서 지역에서 지자체를 감시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역 방송국과 시민단체가 같이 적합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면서 비슷한 이슈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축제 용역 관련해서도 여러 애기들이 워낙 많아서 제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게 건들면 오히려 피해가 될 테니까 준비를 잘해서 취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지자체장들의 교체시기에 제보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인복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죠.

이인복 위원

저는 MBC에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사업 그리고 재밌는 사업을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 파리가 예술의 도시인 건 아는데 왜 예술의 도시가 됐을까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반 시민들도 그림을 사기 시작하면서 미술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나 귀족들만 소유했던 그림이 일반인들에게도 거래가 되면서 많은 미술가들이 파리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 곳에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던 거죠.

그 것처럼 대전도 예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전하려고 하면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그 시장이 커지는 역할을 MBC가 캠페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보통 가을철이 되면 '독서의 계절입니다' 라는 캠페인이 나오는 것처럼 대전MBC 캠페인으로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 오늘 이사 했어요 또는 개업했어요. 그림 선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일상에 접어들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은 되게 희한해. 거기는 친구가 집을 이사하면 그림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어" 라는 문화가 잡힌다면 그림 시장은 커질 거고 전국의 유명한 미술가들도 '대전에 가서 그림을 그리자'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전의 미술 시장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예술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전MBC에서 일단 시작은 미술캠페인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조금 더 밀도 있게 단순히 전시회 소식뿐만이 아니고 작품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전시회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펼쳐졌는지를 조금 더 깊게 다뤄주면서 일반인들이 예술에 대한 감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캠페인과 예술 분야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시회 소식을 보면서 저도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윤지석 위원

사훈이 자율, 책임, 품위, 단합이고 올해 캠페인은 <힘을 내유 같이 가유>인데 저는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뉴스라든지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번 좋았다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올라왔던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요 내용을 아이들이 부르는데 아주 힘이 되더라고요. 지하차도에서 많이 죽고 선생님과 새 생명도 죽고 이런 우울함 속에서 다시 일어나요 노래가 참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MBC소년소

녀합창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처럼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사다 보니까 시각이 편협할 수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시 반 지하 주택 침수피해 관련해서 반 지하에 사는 분들의 대피요령에 대해서 매일 나오더라고요. 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하고 이렇게 피신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지하차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서 혹시 재난방송 내용이 바뀔 줄 알았는데 계속 반지하만 나오더라고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을 때의 대피요령... "앞바퀴 정도에 물이 차면 빨리 차 포기하고 도망 나와라", "비상 감뎁이를 켜놓아서 다른 사람도 멀리서 터널에서 그 안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와 오송 사이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마다 공사가 언제 끝나나 생각했었는데 15일 오전 8시 45분 결국 24명의 희생자가 생겨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뉴스에 보면 "예견된 사고입니다. 인재 사고입니다" 하는데 기자들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그랬는데 기자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뛰지만 너무 테이블에서만 앉아서 기사를 작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퇴근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더라면, 터널이 적어도 하천보다 낮다는 인식들이 있었으면 예견된 사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 합시다" 하고 미리 뉴스를 내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기 전에 일본에 이미 장마 피해가 많이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에 일본의 장마 소식만 전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위험 지역이 있는지 먼저 살펴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보통 예방의학이나 산업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공장에서는 산업 재해율이 몇 퍼센트 정도, 화학 공장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일반 사무직에서는 그게 급격히 줄겠죠. 그런 퍼센트가 있듯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풍이니 지진 재난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 죽음 속에서 태어나는 인류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방송하면 우리가 서로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가 3명을 구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기사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라든지 셉트리온에서 재난 지역에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도 같이 기자들이 다뤄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월 20일에는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2026년에 문을 열 수 있다. 3년간 315억 원의 예산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김태욱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

의사의 편향된 시각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 지방 의료를 소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역 병원,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 우수 인력을 다 끌어가니까 지방에는 우수한 의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들이 서울에 더 많이 쌓여요. 그래서 간단한 유방암 1기 대장암 1기조차도 다 서울로 가요. 사실 그 정도는 지역에서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호자들도 서울까지 안 가 잡아요. 서울에 가면 보호자가 원룸이나 여관에 있어야 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역 병원이 활성화돼야 하거든요.

지역 병원이 활성화되려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들은 낙후된 의료 지역에도 반드시 가도록 해야 하고 의사들이 병원에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순환 근무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김태욱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지만 그런 대안까지 제시해 줘야 하고... 내포 신도시에 과연 종합병원이 2026년까지 완공될까 하고 해시태그를 보면 명지의료재단이라고 되어 있던데 명지의료재단은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생길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지역 의료가 살아야만 지역 주민들이 편합니다. 기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적어온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가족 신상이 털리거나 또 제2의 가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평범하게 취재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분이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차 가해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 인터넷 뉴스에 이 분은 23살의 젊은 나이였고, 대전만년고등학교 수석졸업을 했고 부모님들이 대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고, 대전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를 했다는 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기자분들을 조금 비하할 테니 이해해 주세요. 뉴스를 내보낼 때 책상에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기간제 교사를 할 때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을 인터뷰한다든지 만년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발로 뛰는 기사를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대전에서도 추모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했더라고요.

덧붙여서 교권 회복, 체벌도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이라든지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는 체벌권 만은 선생님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대안 제시라든지 경찰들의 공권력은 회복돼야 한다든지 제복 입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수위라든지 행사장의 안전질서요원 등 제복 입은 분들에게 순응하는 게 우리 사회가 결국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 할 하나의 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도 기자분들이나 방송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제가 활자 중심인 사람이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힘을 내유 같이 가유'를 말씀 드렸었는데 홈페이지 화면 바꾸셔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게시판에 기적의 마라톤 보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토닥토닥 기적의 마라톤을 주로 하시는 곳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힘을 내유 같이 가유>에 최근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BC가 굉장히 소통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고 단편적이고 깊이가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사실 그 때 제가 유튜브에 있는 줄 몰라서 지난달에는 홈페이지에서 찾아 봤던 건데 그렇게 홈페이지도 바뀌고 그래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어떻게든 적재적소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애도해야 될 일들이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많아서 다들 애쓰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오늘M>프로그램 7월 방송분을 전제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노인 학대 부분은 제가 복지 쪽이니까 더 섬세하게 보기는 했는데 노인 학대에 나왔던 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대전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동보호기관은 3개가 최근까지 생겼고...

그 곳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직원 이직도 많고 노인 보호나 아동 보호는 학대 폭력 이런 것을 감당하는 곳이어서 실제 젊은 사회복지사도 일하는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잘 다뤄서 제가 전화도 하고 잘 봤다고 했는데... 바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보기를 해서 늦게 제가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만금 환경 생태 센터를 취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갯벌을 다 막아 땅을 만든 곳에서 다시 생태를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실 다 죽게 만들고 죽은 것을 박제화한 그런 생태관에서 다시 생태를 얘기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내용으로는 훌륭하고 홍보되는 것들로만는 맞는데 <오늘M>자체가 전국을 그렇게 다니는 것을 몰랐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내용들이 있었고 가벼우면서도 또 깊이가 깊게 다루는 <오늘M>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하고 내용들의 깊이도 가져가시는 걸 보면서 사실은 MBC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생태 문제나 기후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여러 문제들을 조금 더 책임 있게 선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이 조금 생겼

고요.

그리고 제가 활자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젊은 분들이 MBC시청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제가 보는 시각보다 젊은 세대들이 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생태관에서 생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충북 예천’ 오프기는 대전MBC 단독인가요? KBS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걸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방송사 뉴스 아이템 중에서 백선엽 장군을 보훈부 새장관이 친일 기록을 삭제해 버린 아이템을 보면서 아이템도 좋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전국 방송에서 지역 방송으로 넘어올 때 몇 가지 요소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변화가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조명일 수도 있고 진행자일 수도 있고 리포팅하는 내용상으로는 지상파 방송이 대개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지역 방송에서는 선명하게 나가야 할 때 슬쩍 뒤로 빠지는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선엽 아이템도 MBC 아이템이 아니었고 다른 방송사 아이템이었는데 거기서도 양쪽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 얘기하는데 그걸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너무 뒤로 빠지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걸 느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7월 20일자 <오늘M>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사흘 방송하는 거고 작가가 한 분쯤 계신 것 같은데 그 분이 매주 세 가지 아이템 발굴하고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특정 회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평소 가져야 하는 기준으로서의 얘기인데 맥락에 대한 적절한 어휘를 택했는가, 그리고 서술에 대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가 이 두 가지는 늘 생각했으면 좋겠다...

김영진 위원님도 예를 드셨던 공주 옥룡동 수재 현장 찾아가서 스케치도 하고 현장 인터뷰도 두 개 따고 보도에서 간단하게 다뤘던 걸 좀 더 심화시켜서 전달해 준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를테면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을 척척해 내는’... 이게 긍정적인 아이템 같으면 척척 해내는 이런 어휘는 딱 맞아 떨어지지만 수재 현장에 고통의 한복판에 있고 정리 정돈이 안 돼 있다고 하는 인터뷰와 현장 스케치에 이어서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자기 맡은 바 일을 ‘척척’ 해내고 있다는 거는 적절한 맥락은 아닌 어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척척 해내는 게 내용상으로는 맞는 내용이었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짐을 끌어내고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고 빨래 자원봉사자 오신 분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셨어요. 그래서 ‘척척’ 해내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도 자원봉사의 이런 역사가 오래 성숙되면서 역할 분담이 딱딱 이루어져서 누구는 앞에 나서서 일하고, 누구는 앞에 나서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여든 분들이지만 그 경험과 역사가 쌓이면서 우리도 자원봉사가 시스템화 되고 있다. 이 맥락으로 서술을 이어주셨으면 ‘척척’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에 대한 매우 유효적절한 표현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앞부분의 맥락이 ‘막막하다.’에서 바로 ‘척척 한다.’고 하니가 연결 부분이 어긋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이들의 얼굴은 밝아 보여” 이것도 ‘밝아 보여’ 어휘 선택 자체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일이 해결되어 가는 단계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밝아 보였다는 것도 너무 상투적인 어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면 정말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왜 밝을까 했더니 이분들이 빨래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소수 인원이 와서 그 많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괜히 죽을상하고 빨래하는 것보다는 서로 붙어해가면서 으쌰으쌰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아 보인다는 말도 맞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현장은 밝았는데 그 앞뒤의 그림들과 내러티브의 흐름이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아지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이를테면 내러티브에서 ‘밝아 보였다’ 를 던졌으면 현장에 리포터가 인터뷰로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이렇게 해서 해소하든지 아니면 임세혁 아나운서가 노련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힘차게 가져가는 것 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 주든지 키워드가 던져졌으면 항상 이야기의 마무리는 지어져야 한다. 왜 그런 말을 던졌는지... 잘 만든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를 예로 어휘 선택의 적절성과 서술의 마무리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건 연극 공연 준비하는 그 아이템을 방송하면서 진행자가 “제가 배우 유나 영씨하고 좀 전에 전화 통화했거든요” 이런 애드리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 옆에 여자 진행자가 약간 놀라면서 “정말요?” 하니가 베테랑 한분이 치고 나가고 신참 진행자가 약간 놀라지만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예뻐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진행자들이 애드리브를 대하는 자세는 항상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추적 보도 형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신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 이번 주 중 피해액 50%를 선지급 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지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계속 추적 보도 형식으로 이어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대전MBC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말씀 주신대로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워낙 많아서 기자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 감사하고 전반적으로 재난 보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기자들한테 전달해서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남도의 그런 발표들을 보면서 기자들도 사실 의문을 가졌어요. 비가 이번에 한 번 오고 안 올 것도 아닌데 경남에서도 “이재민들을 천막에서 거주하게 하지 말고 호텔로 옮겨라” 이런 식으로 지자체들의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재정이 수반이 돼야 가능한 것들인데 발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도에서 나온 얘기는 충남도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재난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성금을 모금해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불투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보도하도록 하겠고요.

대전시 수의 계약 건과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시 내부에서 어쨌든 그런 계약 건과 관련해가지고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특정 제보가 있으시다면 같이 활용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예고 뉴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올해는 산사태에 대한 위험성에 비중을 해서 집중 호우 이전에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산불이 우리 지역에 크게 있었기 때문에 산불이 있는 지역들은 산사태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주의 예고 뉴스로 산사태 부분을 집중해서 했었고 충북 오송은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지하차도는 저희가 다루지 못했지만 몇 년 전에 동구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하차도 예고 방송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태풍도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살 보도에 저희도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들일수록 드라이하게 팩트 중심으로 방송하는 보도 지침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대전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추모 공간들이 마련된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보도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만년고 제자들에게 대한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을 추모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만년고 학생들이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게 기간제를 어쨌든 지역에서 했으니까 그 선생님을 봤을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조금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권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걸

학생인권 조례로 되받아쳐서 진행하려고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계속 팔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백선엽 장군 건은 단신 기사로 친일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광복회에서 계속 친일 삭제하면 안 된다고 요구해 저희도 어제 다루긴 했는데 뉴스 시간 관계상 편집이 뒤에 있어서 방송 되지는 못했고 아침 뉴스가 나갔는데 그 기사를 보고 모호하다는 느낌이 드신 것 같아요. 아예 친일을 뺐으면 그냥 원사이드하게 가지 이런 것들이 붙여서 기계적인 중립에 대한...

손병우 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게 뒤로 슬쩍 빠지게 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이 행정부의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을 마치 사회적으로도 다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입장도 있고 요런 입장도 있다 라는 밸런스 문제이면서 동시에 대립이 되고 있다는 걸 선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조금 더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병우 위원장

‘이슈로 던져진 것이다’ 라는 것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이 이슈는 이렇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지역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보도뿐만 아니라 편성에서도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텐데 급하게 취재하고 송출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러티브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께서 대전MBC와 연결해서 콘텐츠 내용을 좀 더 밀도있게 다뤄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주 문화예술 쪽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나름 제작진이 그냥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한 번 더 들어가서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연극이나 전시나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 행동 요령... 저희가 TV에서는 재난자막을 재난상황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SB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때 재난 행동 요령이 나가고 있고 라디오에서도 중간 중간에 나가고 있거든요. 라디오에서 들으신 것 같고 지하철도가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 로컬에서 나간 건지 서울에서 받은 건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창문을 꺾 때 한가운대를 때리면 안 깨진대요. 네 모서리를 때려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몰라요.

이상욱 편성국장

저희가 일단 재난 상황에서는 자막이든지 영상이나 라디오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재난 행동 요령이라든지 예방 대책에 대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시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의 마라톤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해서 <힘을 내 유 같이 가유>에 반영해서 방송했구요. <오늘M> 다채로운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 소식하고 전국 소식하고 다양하게 소개하겠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시각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상파 미디어에서는 타깃 시청층을 일단 중장년층으로 보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시각이 어떻게 하면 합쳐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저희한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러티브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정도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애드립은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진행자들끼리 하는 건데 좋았다고 전달해주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사업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께서 그림으로 소통하는 도시 캠페인을 제안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합니다. 미술 사업만큼은 언론사 중에서는 대전 MBC가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보다는 공익에 방점을 두고 금강미술대전에 이어서 아트앤미디어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역대 금강미술대전 수상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대전 미협이 주최하는 대전국제아트쇼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판매를 시도해서 몇 점이 거래 의사가 있었긴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

씀하신 것과 결이 다른 부분이지만 맥락은 같으니까 미술 사업을 선도하는 그런 언론 매체로서 저희에게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업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사업성보다는 공익성과 도시의 정체성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회의 때마다 상당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연령대를 낮춰서 소위 퓨처스리그 리저브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 정도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중앙 신문 매체에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 6.25 관련 행사에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원이 대표로 참석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사들이 나기도 했고요. 시립청소년합창단과 컬래버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년소녀합창단 창립 운영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사회에 헌신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성취감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 독일 공연도 예정돼 있고요. 더 많은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한다든가 힘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작곡해서 저희가 방송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독일 공연은 어떻게...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독일 드레스덴에서 초청을 받아서요. 현지 드레스덴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을 합니다.

이은표 간사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영진 위원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주요 성과로 얘기를 하고 또 지역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데 아시겠지만 해당 건물이 예전에 마권 발매소입니다. 마사회 건물이고 그 마사회 이전이 대통령 공약인데 어쨌든 폐쇄가 되었죠. 그 이후에 대전시가 마권 발매소로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월평1동 지역의 회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지점들이 처음에 마권 발매소가 없어질 때도 제대로 얘기가 안 됐고 방위청 들어오고 또 민선 8기로 시간도 바뀌고 하면서 그 이슈가 완전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가 1999년에 들어왔는데 거의 2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지역이 유흥가로 변했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엄청 안 좋아져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의 후속 보도들이나 지역 활동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방위사업청 얘기 다루실 때 방위사업청의 원래 이슈들은 그것대로 다루고 우리 지역의 이슈로서 그 이후의 대책들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 이슈로 활동을 했었지만 지자체가 치사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권장의발매소가 순수익이 엄청난 사업체이다 보니까 대전시에 매년 100억 정도씩 세금을 냈었거든요. 근데 대전시가 그 세금들을 그냥 본인들 다른 명목으로만 쓰고 그 지역에 대한 복지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표 간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김환균 사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개인적으로 위촉되기 전에 제가 비행기표를 사놓은 일정이 있어서 6월에도 빠지고 8월 마지막 주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각성하고 앞으로는 개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간사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환균 사장

저희가 귀 담아서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보도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숙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미술 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전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날 때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술인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 아까 작가의 의도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면의 심리가 어찌고 저찌고 하다보면 그 순간에 뭘 소리인지 몰라서 물러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협회에서 정한 공정 가격이 있나 봐요. 호당 얼마여야 된다고 이걸 내세우면 괜히 물어봤다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림 판매를 저렴하게 대행해 주는 곳

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반인들이 정말 몇 백만 원 내고서 선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 싼 값에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예술품을 즐긴다는 것은 내가 때로는 구매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미술 시장이 형성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방송에서 다룰 때 아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 그러면 익명의 도시 같은데 '지역!' 그러면 아름다움 알게 되고 경찰을 잘못했다고 하면 갑자기 경찰이 내 차만 잡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MBC 기자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보도하는 것이 저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거고 심지어 핍박받는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절대로 야지 놓지 말고 정색하고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지역 문제를 다룰 때 저는 눈높이가 지역민들의 눈높이로 낮아졌으면 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으러 가면 “어떻게 어떻게 아프죠” 그러면서 내가 아픈 증상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 병 저 병 다 알아봐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의사는 환자들을 계속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아파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지역 언론인들도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 아픔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M>은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방송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시간대 주 시청자들이거든요. 젊은 사람은 안 보거든요. 보더라도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주요 시청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년층 이상 그 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사람들 못 만나고 그럴 때 노래방 기계 하나 사들고 시골에 가서 방구석 노래방을 하자. 그래서 뽕짝 부르면서 그 분들이 기분 풀게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서술의 마무리 책임은 기자든 피디든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서로 논의할 때가 생각나서 재밌었고요. 어쨌든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허투로 듣지 않고요. 어떻게든 반영하고 개선하려고 애를 쓰니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표 감사

이상으로 7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